2017년 하계연합학술대회(2017.8.17일)
- 공·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방향 -

「생산적 금융」과 「포용적 금융」의 이론적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

2017. 8. 17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김 용 범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목 차

Ⅰ. 들어가며 ····· 1

Ⅱ.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····· 3

Ⅱ-1. 생산적 금융 ····· 3

가. 기존의 금융 이론·관행·정책에 대한 성찰 ····· 3

나.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 ····· 5

Ⅱ-2. 포용적 금융 ····· 7

가.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 ····· 7

나.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····· 10

Ⅲ. 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 ····· 11

Ⅲ-1.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찰 ····· 11

가.「생산적 금융」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 ····· 11

나.「포용적 금융」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 ····· 14

Ⅲ-2. 우리 보험산업의 과제 ····· 15

Ⅳ. 맺음말 ····· 17

Ⅰ. 들어가며

□ 1985년, 하버드대 교수였던 **로렌스 서머스***(Lawrence H. Summers)는 「**On Economics and Finance**」라는 자신의 논문**을 통해서 **'케첩 경제학**(Ketchup Economics)'이라는 표현을 **처음 소개**

* 하버드대 교수(1983년~), 제71대 재무장관('99.7월 ~ '01.1월)
** 1985년, Journal of Finance에 게재

□ **'케첩 경제학'**은 **정통 경제학자**가 갖고 있던 **금융 경제학자, 금융 종사자, 금융당국**에 대한 **냉소적인 시각**을 담고 있음

○ 정통 경제학자는 **케첩시장**을 평가할 때, **원료**(토마토) **가격**, **대체재**(substitutes) **시장**, **임금** 등 경제시스템의 전체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**입체적으로 분석**하나,

○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금융 경제학자 등은 **케첩의 상대 가격비교**만으로 **케첩시장이 효율적**인지 **가격이 적정한지** 판단하는 실수*를 저지른다는 것임

* **2쿼트 케첩병의 가격**이 **1쿼트 케첩병**의 **2배 정도**이면 **시장가격이 적절**하고 **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**한다는 논리를 전개

□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'07년, **경제학의 대가**인 **로버트 쉴러**(Robert Shiller)와 **유진 파머**(Eugene Fama)간에 **'케첩 경제학'**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음

○ 시카고 경영대 교수(금융경제학)였던 **유진 파마**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'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할 때 **전반적인 주택시세**에 따라 잠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**주택시장의 가격은 합리적**이고 **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**'고 발언

○ 그러자, 예일대 경제학 교수였던 **로버트 쉴러**는 '07년 출간한 그의 저서 **'비이성적 거품**(Irrational Exuberance)'에서 이러한 논리가 **전형적인 '케첩 경제학'**이라고 **비판**

※ 아이러니하게도 자산가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한 두 사람은 '13년에 자산가격 변동에 대한 공로로 나란히 노벨경제학상을 수상

□ '08년 금융위기는 **두 논쟁의 '현실 적합성'을 테스트**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, 또한 금융부문이 **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와 그 피해**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함

○ **수백만 달러의 연봉**을 받는 대형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의 임원 그리고 금융 경제학자 등은 '08년 위기를 초래한 **미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**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, 위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였음

□ **'케첩 경제학'에 관한 이야기**가 주는 **교훈**은
단순히 '**정통 경제학자**'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

○ 금융당국을 포함한 '금융 경제학자', '금융업 종사자'들이 **전체 경제시스템이라는 큰 틀** 속에서 **'금융시장'을 분석**해야 하며,

○ '이론 없는 현장은 맹목이고, 현장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'는 말*처럼, **'학계(Academia)'와 '현실(Field)'의 지속적 소통**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

* "개념없는 직관은 맹목이요, 직관없는 개념은 공허하다." (Immanuel Kant)

□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업계의 **여러 교수·학자분**들, **보험사·보험개발원** 등의 **보험실무 담당자** 분들이 함께 모여,

○ 「**공·사보험의 역할과 향후 조화로운 발전방향**」을 **토론**하는 오늘 이 자리는

- 앞으로 우리의 **사회·경제시스템 속**에서 **보험산업이 나가야 할 역할과 방향**을 고민하는 **중요한 계기**가 될 것으로 기대

□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헌수 보험학회장님과 여러 귀빈 여러분들께 **감사의 말씀을 드림**

□ 저는 오늘 다음의 2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음

❶ 새정부 금융정책의 두 가지 '**핵심 가치**(Two Pillars)'인 「**생산적 금융**」과 「**포용적 금융**」

❷ 이러한 관점에서 「**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**」

Ⅱ.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

1. 생산적 금융

가. 기존의 금융 이론·관행·정책에 대한 성찰

□ 「**생산적 금융**」을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"**금융이 본연의 역할**을 수행하고 있는가"에 대한 **반성**에서 비롯

□ 자본주의 경제에서 **금융의 핵심적 기능**은 **선별기능**(screening)을 통해 **한정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** 하는 것임

○ 금융이 **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**하기 위해 필요한 **자금을 적시에 공급**하면, 이를 마중물 삼아 **혁신적 기업이 등장**

○ **낡고 오래된 지식·기술**은 혁신적 도전이라는 **창조적 파괴**(Creative Destruction) **과정**을 거치면서 **자본주의 경제**는 **지속적으로 혁신·성장**

⇨ 금융이 **제 역할**을 다하면 자본주의 **경제시스템 전반이 활력과 역동성을 유지**하면서 **지속적으로 성장 가능**

□ 그러나, 그 동안 금융은 금융회사간 **레버리지 거래**(trading), **모기지 금융** 등에 치중하면서 **자금 쏠림현상을 심화**시켰고, **거시경제의 취약성**(vulnerability)을 초래

○ 라구람 라잔(Raghuram Rajan)*은 '**자본주의의 역동성**'을 저해하는 **가장 큰 주범**으로 '**대형 금융회사와 그 임원**'을 지목하고

* 최연소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, 前 인도 중앙은행 총재

○ 금융이 **레버리지 창출**과 **단기 트레이딩**에 치중하면서 **새로운 아이디어**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 (「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s」)

□ 또한, 저명한 **정책 당국자**들은 '금융'이 **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** 경제시스템의 '**불필요하고 위험한 부분이 비대화**'되고 있는 점을 **우려**

○ **영국 금융감독청장**으로 금융위기 대응을 진두지휘한 **Adair Turner, 前 영란은행 총재**였던 Mervyn King 등은

○ '금융'이 **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** 하고 있으며, 향후 **금융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고민**하는 것이 **시급한 과제**라고 강조

※ (참고) Adair Turner(前 영국 금융감독청장) : 「Between Debt and the Devil('16년)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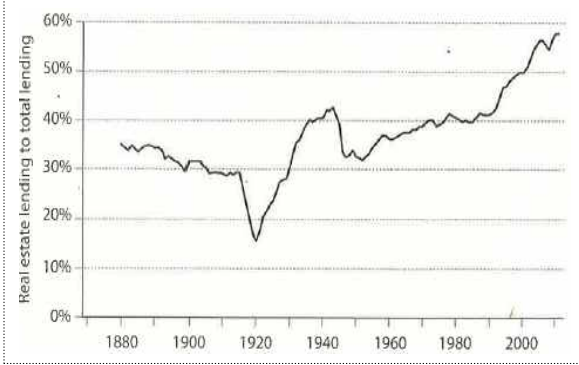
○ 은행 등 금융회사는 **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중개** 기능 대신 부동산 등 **기존 자산의 레버리지를 확대**하는 방식으로 **신용**(credit) 팽창

* 영국 은행의 대출 중에서 약 80%가 부동산 대출이며, 非부동산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14%에 불과('12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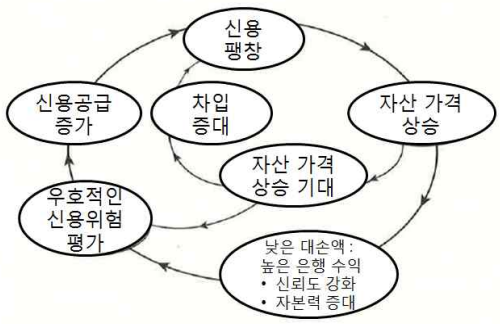
○ 이러한 방식의 신용(credit)은 **금융불안을 고조**시키는 **경제적 공해**(economic pollution)와 같음

○ **빚**(credit)**에 의존한 성장**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**자본규제와 거시건전성 수단**(LTV 등)을 통해 이러한 **잠재리스크를 적절히 관리**할 필요

은행대출中 부동산대출 비중(17개 선진국)



신용과 자산가격 사이클



※ (참고) Mervyn King(前 영란은행 총재) : 「The End of Alchemy('16)」

○ 그간 **세계 경제시스템**에는 부채, 성장구조 등의 측면에서 **불균형**(imbalances)**이 누적**되었고, **이를 바로 잡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**

○ 화폐와 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**연금술이 아님**이 드러났고, 오히려, **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**(The Achilles heel of capitalism)이 되었음

○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**화폐와 금융이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**하는 것임

□ **우리 금융산업**도 혁신 중소기업 등 **생산적·혁신적 분야**보다는 **가계대출, 부동산** 등으로 **자금이 집중 공급**되는 **불균형 심화**

❶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 보다는 **'손쉬운 가계대출'**에 안주

* 은행 총대출 중 **가계대출** 비중(%, 한은) : ('98) 27.7 → ('16) 43.4 [**+15.7%p**]

❷ 차주(가계·기업)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**리스크를 전가**하고, **담보·보증 위주의 여신 관행**에 안주

* 중소기업 대출 중 **담보·보증대출 비중**이 여전히 **약 70%** 수준('17.4월)

❸ **벤처·중소기업**에 대한 자본시장의 **모험자본 공급기능**도 미흡

* GDP 대비 벤처투자자금('15, %) : 한국 0.08, 미국 0.35, 이스라엘 0.38

➡ **금융의 '본질적 기능'**을 되돌아보고 그간 누적된 **경제·금융 불균형을 해소**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

나.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 : Back To Basics

□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
①**지급·결제,** ②**대출자**(lender)**와 차입자**(borrower)**간 매칭,**
③**개인 자산관리,** ④**위험관리 기능**으로 요약할 수 있음

※ (참고) John Kay(FT Columnist) : 「Other People's Money(2015)」

○ 금융은 크게 **4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사회와 경제에 기여**

① **지급·결제시스템**(payment system)
→ 임금을 받고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단

② **금융 중개기능**(intermediation)
→ 저축된 자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분배되어 효과적으로 활용

③ **재산 관리**(personal finance management)
→ 우리의 생애 및 세대에 걸쳐서 개인 재산을 관리를 지원

④ **위험 관리**(risk management)
→ 가계·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뒤따르는 위험 관리

□ 그러나, 현실 속의 금융은 **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고,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와 비판**을 야기해 왔음

① [Adair Turner] 금융부문의 부동산 대출 위주의 **과도한 부채 증가가 2008년 위기를 초래**하였고, 이에 따라 **막대한 위기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**
(⇒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10% 이상 하락)

② [Mervyn King] 과잉저축(savings glut), 은행자산의 과도한 팽창(banking glut)이 결합되어 **세계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(disequilibrium) 지속**

□ 금융이 **경제시스템 불안을 확대시키지 않고, 현대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**할 수 있으려면, '**본연의 기능**'**을 회복해야 함**

○ 금융산업의 **경제적 가치**는 이러한 '**본질적 기능**'을 통해 **가계·기업, 우리 경제시스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**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

* 금융의 경제적 가치는 금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과 사업수익만으로 단순히 측정되고 평가될 수 없음

○ 지금처럼, '**고객의 돈**(Other people's money)'으로 '레버리지 확대 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공급'에 몰두하면, **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소**는 계속될 것임

➡ 4차산업 혁명 등 **급변하는 환경** 속에서 금융이 성공적으로 **본질적 역할을 수행**할 수 있도록 **금융정책 방향 재정립** 필요

➡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는 **「생산적 금융」**으로 **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**

➡ ①**금융의 리스크 선별기능 강화**, ②**효율적 자금중개시스템 구축**, ③**제도적 장애요인 제거**, ④**시장실패 적극 보완** 등 4가지 원칙 아래 **「생산적 금융」** 관련 과제를 발굴·추진

---

2. 포용적 금융

가.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

□ 「**포용적 금융**」의 필요성은 **'금융'과 '금융정책'의 사회적 역할**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

□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'**금융업계의 탐욕과 무책임**'이 **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**되었고, 금융에 대한 **국민의 신뢰가 추락**

○ 선진국에서 **대형 금융회사 임원**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수십배가 넘는 **막대한 연봉**을 벌어 들였지만,

○ 정작 대형 금융회사의 **파산**으로 인해 발생한 **경제적 부담**은 **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납세자**(taxpayers)가 짊어졌음

> ※ **(참고)** '11년, 뉴욕에서 시작된 '월가를 점령하라(Occupy Wall Street)' 시위가 全세계 1,500여개 도시로 확산되기도 하였음
>
> → 당시, 로이터 통신이 미국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**응답자의 50% 이상**이 금융위기 이후 **금융업계의 개혁이 미진**했고, **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미흡**했다고 답했음

□ 이에 따라, **現 금융시스템**의 구조가 **소득 양극화를 심화**시키고 가계, 특히 **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**시키는 등 다양한 **사회문제를 야기**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

① 현재 은행의 담보대출 구조는 **자산가격 변동 위험**을 **과도하게 차입자에게 전가**시킴 (은행 등 금융기관은 제한적으로만 위험 부담)

- 예컨대, **5억원짜리 아파트**를 구매하기 위해 **은행에서 4억원 대출**(차입자(고객) 자금 1억원)을 받으면,

- **아파트 가격이 20% 하락**할 때까지 은행은 **전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** 반면, **차입자가 모든 위험**을 고스란히 짊어짐

② 이러한 구조 下에서 **은행은 위험을 등한시**(neglect risk)하고 **과도하게 부채를 공급할 유인이 존재**

- 특히, 은행은 **부분지급준비금제도**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**신용을 창출***할 수 있어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**부채 과잉공급**

* 영국의 경우 통화의 2%만이 지폐와 동전이며 98%는 신용창출의 결과 (Adair Turner, Between Debt and the Devil))

③ 반면, 은행이 공급한 과잉 부채로 인해, **자산가격의 하락**과 **경기불황의 피해**는 **가계(특히 서민·취약계층)에 집중**되고 **소득 불균형을 심화**

※ (참고) Atif Mian(프린스턴대 교수) & Amir Sufi(시카고대 교수) : House of Debt('14년)

○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불황은 **가계부채가 천정부지**로 **증가**하도록 **방치·조장한 금융시스템**이 불러온 **인위적 재앙**

○ **부채금융**(Debt-financing) 체제에서 자산가격 하락은 **차입자의 과도한 재산손실, 소비위축**을 가져와 **경제불황을 초래**

*** 가계부채가 많고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진 국가**와 **'08년 이후,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국가** 간에는 **강한 상관관계**가 존재

○ 자산가격 하락의 피해를 **가계가 집중적으로 부담**하는 **주택담보대출** 구조 하에서 **소득불균형 심화**
→ '빚은 다름 아닌 가계에 위험을 전가하는 역(逆)보험(anti-insurance)'
→ 금융회사는 추가 부담없이 풋옵션(put option)을 보유하고 있는 것

□ 하지만,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**구조적 한계**에도 불구하고,

○ 금융은 '**사회문제 해결에 기여**'하고, '**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**'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**유용한 수단**이 될 수 있음

□ 월가에 대한 비판론자인 **로버트 쉴러 교수**도 그의 저서 「**Finance and the Good Society**(2012)」에서

○ 금융은 보건·교육·환경 등 다양한 **사회문제를 해결**하는데 필요한 **자금을 공급**하는 가장 **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수단**이며,

○ **금융회사의 '인센티브 구조' 등 금융시스템 혁신**을 통해 금융은 **'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'**라는 **원대한 목표**를 **완성하는데 기여**할 수 있다고 주장

* Finance의 어원은 **목표, 완성**이라는 뜻의 라틴어 'finis'에서 유래

□ 특히, 이러한 인식은 **국제 사회**에서도 **지속 확대**되는 추세

○ '08년 금융위기 이래, **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** 및 **국제적 공조**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,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

* '17.7월 G20 독일 정상회담시 「**2017 금융포용 행동계획**(FIAP)」을 채택
(주요내용 : 금융관련 국제기준 마련 및 금융부문 평가시 금융포용 우선 고려, 소비자보호 및 금융이해도 제고 정책 강화, 시장활용한 혁신적 금융포용 증진 등)

○ **'재무적 수익성'**과 **'사회문제 해결'**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**'임팩트 금융*'**도 주목받고 있음

* 금융기관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주거, 교육, 보건, 환경 등 사회적 가치(이익)를 함께 추구하는 금융
❶사회적 가치와 재무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'임팩트 투자'와
❷'소액금융지원'(microfinance)를 결합한 개념으로 통상 이해됨

※ (참고) 임팩트 금융 관련 주요국 사례

미국	지역개발금융(CDFI :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) 펀드 : 지역금융기관이 낙후지역 등에 투융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약 1%를 보상하여 낙후지역 투융자를 간접 지원. 약 1,000여개의 지역금융기관이 이용
영국	자선은행(Charity Bank, 2002년 설립) : 주택, 사회복지, 교육, 건강, 예술 등의 사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매년 250억원 이상의 수익 실현 중
네덜란드	트리오도스 은행(Triodos Bank, 1980년 설립, 자산규모 12조원 수준) : 재생에너지, 공정무역 등 윤리적 사업에 투자하여 매년 150억원 수익 실현

□ 우리 금융의 포용성(Financial Inclusion)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**발전 가능성**이 남아 있음

※ (참고) World Bank의 금융포용성(Financial Inclusion) 지표(2014)

- ㅇ 25세 이상 인구중 금융회사 계좌 보유비율 : (韓)96.9%, (英)100%
- ㅇ 15세 이상 인구중 소득 하위40% 계층의 계좌 보유비율 : (韓)92.4%, (英)98.3%
- ㅇ 15세 이상 인구중 소득 하위 40% 계층의 대출경험 : (韓)13.2% (英)38.3%

나.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

□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**두 가지 측면**의 노력 필요

① 취약계층, 창업·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**정책 서민금융**

② 정책금융의 한정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**민간 금융부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**되는 방향으로 **제도·인센티브 재설계**

□ 우선, **정책 서민금융**을 통해서는

ㅇ **저소득·저신용자** 등에게 금융서비스 이용 **기회가 제한**되거나, **금융서비스의 편익**이 **고소득·고신용자에 집중**되지 않도록 해야 함

□ **민간 금융부문**과 관련해서는

ㅇ **건전한 사회·경제시스템 유지와 금융회사의 지속 성장** 관점에서,

ㅇ 연체자 재기지원 등 **사회적 배려**가 **금융의 중요한 가치**라는 **'인식의 전환'**이 일어날 수 있도록, **'법·제도적 인센티브'**가 **재설계**될 필요

➡ 이러한 관점에서, ❶**금융이용 기회가 제한**되는 계층과 ❷**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**하는 계층*의 금융접근성을 **획기적으로 제고**하는 **따뜻하고 포용적인 금융환경**을 조성해 나갈 것임

* ❶ 'Thin Filer' 등 정확한 신용등급이 없어 중·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· 대학생 등 중·저신용자,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되는 장애인, 노년층

❷ 한계차주, 고금리대출 이용자, 연체자, 장기연체자 등

Ⅲ. 보험산업의 과제와 역할

1. 우리 보험산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성찰

가.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

□ 우리 보험산업은 **외형적 측면**에서 **해외 주요국 수준**으로 성장했으나, **질적인 측면**에서 '**위험 관리**'라는 본연의 기능은 **미흡**

※ **(참고) 국내 보험사업의 외형적 규모**

❶ (수입보험료) 국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**세계 7위** 수준

(단위 : 억달러, %)

순위	생손보 규모(Swiss Re Sigma)			국내총생산(GDP) 규모 (IMF)		
	국가	수입보험료	점유율	국가	GDP	점유율
1	미국	13,523	28.6	미국	18,569	24.9
2	일본	4,713	10.0	중국	11,218	15.1
3	중국	4,661	9.8	일본	4,939	6.2
4	영국	3,042	6.4	독일	3,467	4.4
5	프랑스	2,376	5.0	영국	2,629	3.2
6	독일	2,151	4.5	프랑스	2,463	3.1
⋮	⋮	⋮	⋮	⋮	⋮	⋮
7	**한국**	**1,709**	**3.6**	**한국(11위)**	**1,411**	**1.9**

❷ (수익성) 보험사의 당기순이익도 **6조원 내외의 양호**한 수준

단위(조원)	'13년말	'14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.1분기
생명보험	2.1	3.2	3.6	2.4	1.6
손해보험	1.4	2.3	2.7	3.5	1.2
합 계	3.5	5.5	6.3	5.9	2.8

❸ (건전성)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 비율도 **250%에 육박**

RBC(%)	'13년말	'14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.1분기
생명보험	286.2	310.4	278.3	240.6	246.7
손해보험	261.1	256.3	244.4	227.9	232.3
합 계	278.4	292.3	267.1	236.5	242.1

❶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**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·판매가 미진** ⇒ **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 발생**

- **실생활과 밀착된 위험 보장**의 경우, 단독 상품이 아닌 **장기/저축성 보험의 특약** 형태로만 판매됨에 따라

  ■ 국민들은 불가피하게 **과잉·불필요한 보험까지 가입**하게 되는 등 **소비자 선택권 제약**

- **'붕어빵식 상품 베끼기'** 등으로 **혁신적 상품 개발** 미진 → 그리스 신화의 **'프로스쿠스테스*의 침대'**를 연상

* 그리스 신화 속 강도 : 행인을 붙잡아 철로 만든 침대에 맞춰서 키를 늘리거나 자르는 방식으로 살인·약탈 ⇒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남을 맞추는 것을 의미

※ (참고) 가계 실생활과 관련된 소액보험 사례

ㅇ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중이나 **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제한**되는 상품

ㅇ 이러한 보험은 **손해율이 양호**하여 **단독상품**으로도 충분히 판매 가능

보험상품	보장내용	위험보험료(연간)	손해율
· 자전거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	·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의 신체/재물에 발생시킨 손해	1,238원(실손, 1억한도)	116%
	· 자전거 운행중 본인 상해	90원(정액, 1000만기준)	
· 스키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	· 스키를 타던 중 타인의 신체/재물에 발생시킨 손해	2,031원(실손, 1500만한도)	45%
	· 스키를 타다가 본인 상해	480원(일반)/4,060원(직업) (정액, 1000만기준)	
·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	· 지하철, 버스, 항공기, 철도 탑승중 상해	대중교통이용중 40원 (정액, 1000만기준)	83%
· 6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 보험	· TV, 세탁기,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에어컨, 전자렌지 고장시 실제 수리비	2,019원 (정액, 10만기준)	7%
· 민사소송보험	· 소송사건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비용	43,922원 (정액, 2000만기준)	6%
·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	· 가족의 일상생활 중 사고(누수, 어린이 장난 등)로 발생시킨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	2,363원 (실손, 1억한도)	237%

❷ '자율주행', 'IoT', '헬스케어', '전기차' 등 **4차 산업혁명** 기술을 활용한 **新상품 개발을 위한 업계 전반의 준비**도 미흡
⇒ **기술혁신 등 새로운 사회변화**에 대한 **대응여력 부족**

- 사람이 자동차의 주행을 통제하지 않는 '**완전 자율주행**' 기술이 **보편화**되면 '보험'의 성격이 **근본적으로 변화***되므로 이에 대한 **선제적 준비** 필요

*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 vs. 운전자 배상책임 보험

- **IoT 기술, 빅데이터 분석 기법**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위험관리 기법 등 도입과 함께 **헤킹 피해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**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

* (사물인터넷 활용) 누수탐지 센서, 연기감지기, 운전습관 평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손해보험상품 개발

* (헬스케어 융복합 상품) 웨어러블 기기,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의 생활습관, 건강관리 노력 등에 관한 정보를 집적/관리/분석하고 계약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,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상품 활성화

❸ **보험료율 산출, 언더라이팅**(Underwrting) 등 보험업 본연의 기능인 **위험평가·관리 역량도 미흡**
⇒ 저축성 보험 판매 등에 주력하면서, '**위험 관리**'라는 **보험회사 본연의 역량 강화에 소홀**

- 해외 보험사는 **언더라이팅 경험, 서베이, 국제적 통계** 등을 활용하여 **스스로 보험료를 산출, 종합적 언더라이팅 등을 통해 체계적 위험을 평가·관리**

- 반면, 국내 보험사는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고 **재보험사 보험료율**(이른바 '협의요율')**에 의존**하는 등 위험평가·관리 역량이 미흡

* 기업성보험(상해보험 제외) 중 **재보험사 협의요율**을 사용한 비중
: ('11년) 79.1% → ('13) 80.9% → ('15) 79.2%

나. 포용적 금융 관점에서 본 보험산업

□ 보험은 **가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**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위험을 보장·관리**하여 **사회안전망**(Social Safety Net) 역할을 담당

○ 이는 보험산업이 「**포용적 금융**」이 추구하는 가치와 **가장 밀접하게 연관**된 산업이라는 점을 시사

□ 그러나, 그간의 우리 보험산업이 **본질적 역할에 소홀**하면서, **포용성은 약화**되고, **국민의 신뢰도 하위권**

❶ 보험금 지급 등 보험관련 민원은 全 **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**(63.7%)을 차지하고, **지속적으로 증가 추세**

* 보험관련 분쟁민원 건수(천건) : ('14)44.1 ('15)46.8 ('16)48.6

❷ 全국민 민영보험인 **실손의료보험**(가입자: 약 3,300만명)과 **건강보험간 조화로운 역할**에 대한 논란 발생

➡ **기본으로 돌아가서**(Back to Basics) 하루빨리 보험의 **본질적 역할을 회복**해야 함

○ **국민 경제의 안전판**으로서, 우리 경제가 **활력을 되찾고**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**든든한 버팀목**이 되어야 함

○ 특히, **국가 및 公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**에 대해 **보완적 기능**을 수행하여 '**포용적 복지국가**※' **건설에 기여**할 필요

※ 「100대 국정과제」-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- (전략4) '**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**' ⇒ **사회보장, 노후생활 보장, 건강관리 지원** 등

나. 우리 보험산업의 과제

◈ ①**본연의 위험평가·관리역량 강화,** ②**4차 산업혁명 등 혁신 기술 활용도 제고,** ③**민간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** 등

➡ 3가지 원칙 하에 **「생산적·포용적 금융」의 가치 실현**

[❶ 보험 본연의 기능 강화(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 등 활성화)]

1 **(간단보험 활성화)** 국민이 **실생활과 밀착**된 **간단한 보험**(단종보험)에 **손쉽게 가입**할 수 있도록 **판매채널·방식 확대** 등 개선

* 예 : 항공사(항공권) - 여행자보험,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- 보증기간연장보험
공인중개사 - 전세금보장보험, 인터넷 레저용품판매 - 레저보험, 스키보험 등

○ **전세금 보장보험**을 지속 활성화하여 **가계의 전세금 걱정 완화**

* 가입건수 : ('15) 14,156 → ('16) 15,705 → ('17.1~7월) 10,389
단종보험대리점(공인중개사) : ('17.3월) 35개 → ('17.7말) 116개

○ **위험보장 내용이 단순**하고 **보험료가 저렴한 1회성 보험**은 그 특성에 맞게 **가입서류·절차** 등을 **대폭 간소화**

○ **온라인 판매 채널**을 적극 육성하여 소비자의 **보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**

2 **(보험의 경쟁력 제고)** 보험회사가 **스스로 사고위험·요율을 평가·관리**하여, **자체 위험보유**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

* 경영공시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, 보험료 산출·신고체계 개선

○ 원수보험은 많지만 **과도한 재보험 출재**로 실제 사고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**'외형만 큰 보험사'**와 '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'간 **玉石가리기 필요**

3 **(상품 자율성 지속 확대)** **표준약관의 작성주체**(보험협회)를 **금융당국에서 민간**(협회)**으로 이전**하여 **창의적 상품개발 여건 조성**

* 자본법·여전법 등은 민간협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에 신고

[❷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 촉진]

1 **(보험과 헬스케어간 융·복합)** 나이·성별 등 전통적인 요소 外 **개인별 운동·식사·생활습관** 등에 따라 **보험료 등을 차별화**하는 **핀테크형 고객별(tailor-made) 보험 필요**

※ **웨어러블 기기**, **건강관리서비스** 등을 보험 약관에 반영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**가이드라인 배포 완료**('17.1월)

○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新상품 개발시 법령해석 등 불확실성으로 **애로를 겪지 않도록** '(가칭)**혁신상품 가이드라인**' 마련 등 지원

2 **(자율차·전기차 보험 활성화) 자율 주행차 등장**에 따른 자동차 **보험 제도 개편**방안을 **선제적으로 준비 필요**

○ **전기자동차**의 위험도가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**전기차 보험 활성화**

* 특약반영, 새로운 보험료 산출(개발원) 등을 통해 **현재 전기자동차 보험료를 약 10% 인하** 가능

[❸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]

1 **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** 등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**사회적 역할 강화**

① (**실손**) **건강보험 보장 확대**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 손해율 하락효과 정밀 분석 및 **現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**을 검토할 계획

- **유병자·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**을 도입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**보장 사각지대 해소**

② (자동차)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**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등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** 지속 확보

2 '보험다모아' - '포털, SNS' 연계 등을 통해 **보험사간 가격경쟁**을 촉진하여 **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**

* '17.8월말부터, 「다음(카카오톡) - 보험다모아」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**다음 검색** 및 **카카오톡**에서 **손쉽게 보험료 비교가 가능**토록 할 예정

* 자동차보험(8월) → 실손보험·연금보험·여행자보험(18년) 등으로 확대

Ⅳ. 맺음말

□ Financial Times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**존 케이**는
「**Other People's Money(2015)**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음

○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, 금융회사의 건전성·유동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'**단기적으로 적절한 대응**'일 수 있었겠지만,

- **장기적으로 '금융산업'에 필요한 정책**과는 거리가 있음

* 바젤Ⅲ의 규정집을 길게 만들어 세세하게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

○ **금융 규제**의 주된 목적은 **타인의 돈을 관리**하는 일에 요구되는 **성실함**(loyalty)과 **신중함**(prudence)을 불어 넣는 것이어야 함

- **세세한 행위규제**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**규제준수에 매몰**되게 하기 때문에 **오히려 금융의 윤리수준을 약화**시킬 수 있음

□ 이는 당국의 노력과 함께, **보험을 비롯한 금융 현장**(Field)**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**하다는 점을 시사함

○ '**타인의 돈**'을 다루는 **보험 등 금융산업의 존립 기반이 신뢰**인 만큼, **고객가치가 최우선**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

➡ 금융회사의 **장기적 수익창출, 임·직원 보수산정 기준 등에 있어 '고객·소비자의 만족도', '경제·사회적 기여도'**가 **중심이** 되도록 **'기존 인센티브 체계'를 재설정**할 필요

□ 오늘 이 자리가,
우리 보험산업이 **公보험과 적절히 역할을 분담**하여
국민의 경제·사회적 위험(Risk)**을 경감**시키는 방향으로
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